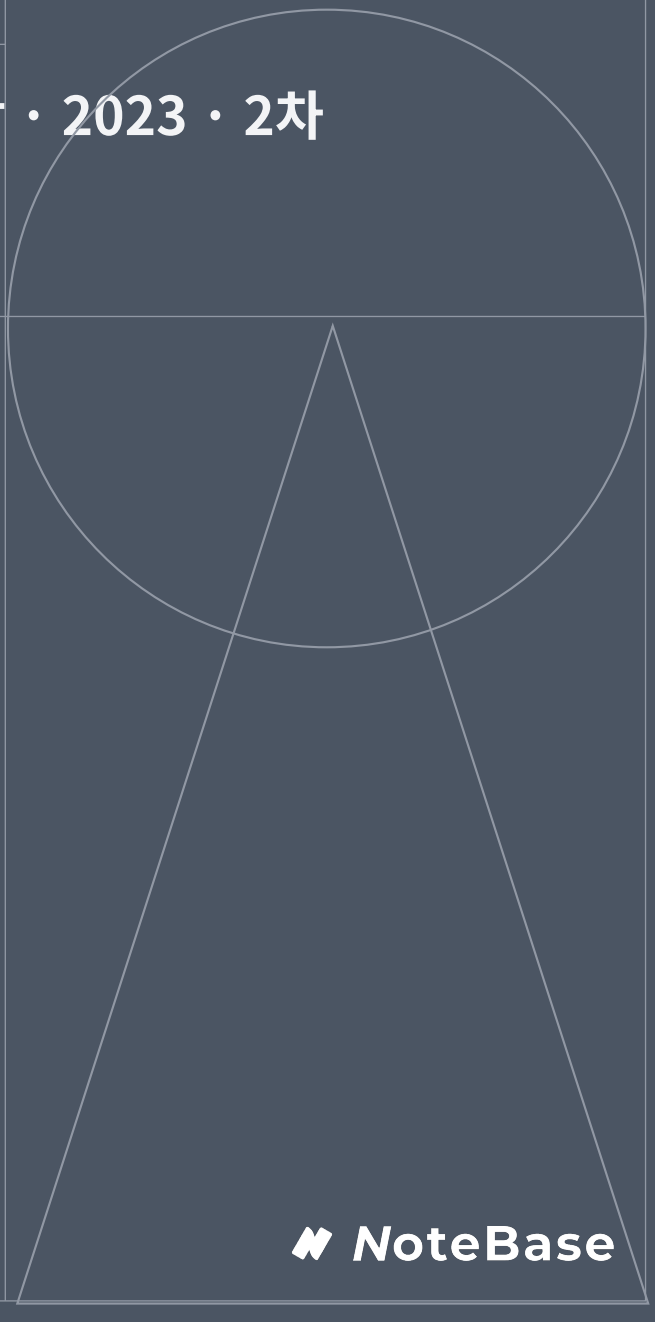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23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23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23 · 2차

문 1. 재무제표 표시의 일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③ 거의 모든 상황에서 공정한 표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달성된다.

④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준수 공시에 관한 기본 원칙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정한 표시는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것을 뜻하며,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면 거의 모든 경우 달성된다.
준수 공시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다면 그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비한정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추가 설명이나 보충 공시를 붙여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공시까지 하면 공정한 표시로 본다. 기준서 준수에 더해 필요한 추가공시를 하는 구조를 옳게 설명한 선지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주석에 명시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은 그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O
공정한 표시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달성된다. 공정한 표시와 기준서 준수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선지이다.

④ O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로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잘못된 회계처리는 사후 설명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짚은 선지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준수 사실을 적지 않아도 된다고 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공정한 표시 자체와 준수 사실의 주석 공시는 별개의 요구사항이므로, 기준서를 지켰다면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무제표 표시 일반사항 문제는 먼저 공정한 표시의 원칙, 준수 사실의 명시 공시 여부, 부적절한 회계정책의 정당화 가능 여부를 각각 분리해서 본다. 선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처럼 공시의무를 없애는 표현이 나오면 우선 의심한다.

암기 포인트

기준서 준수는 공정한 표시로 이어지고, 준수 사실은 주석에 명시하며, 잘못된 회계정책은 공시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2.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②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한다.

③ 측정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더라도 그러한 추정이 무조건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④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중 확인가치, 검증가능성, 측정불확실성, 완전한 서술의 의미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확인가치는 정보가 기존의 기대나 평가를 확인하거나 수정하게 만드는 성질이다.
검증가능성은 서로 독립된 지식 있는 관찰자들이 정보가 충실하게 표현되었다는 점에 대체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이다.
측정불확실성은 금액이나 설명이 추정에 의존하는 정도를 뜻하며, 불확실성이 높다고 해서 곧바로 정보가 무용해지는 것은 아니다.
완전한 서술은 이용자가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과 기술을 빠짐없이 포함하는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피드백을 제공하여 과거의 예상이나 판단을 확인하거나 수정하게 하면 확인가치가 있다. 선지의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는 표현이 확인가치의 정의와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한다'는 표현이다. 검증가능성은 반드시 하나의 확정 수치만 제시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추정치나 범위로 표시된 정보도 사용한 가정과 측정방법을 바탕으로 관찰자들이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면 검증가능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계량화된 정보는 단일 점추정치가 아니어도 가정과 산정방법이 적절히 제시되면 검증가능할 수 있다'이다.

③ O
측정불확실성이 높아도 그 추정이 관련성이 있고 충실하게 표현되면 유용한 재무정보가 될 수 있다.
측정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제되지는 않는다.

④ O
완전한 서술은 단순히 숫자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경제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과 기술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다. 선지의 '필요한 모든 정보'라는 취지가 완전성의 설명과 맞다.

오답 포인트

②는 검증가능성을 '정확한 단일 수치 제시'와 동일시하도록 유도한 선지이다. 검증가능성은 하나의 숫자 여부가 아니라, 제시된 정보가 가정과 방법을 통해 다른 관찰자에게도 검토 가능하냐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자주 혼동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질적특성 문제는 먼저 용어의 정의를 짧게 복원한 뒤 선지의 핵심 단어를 대조하면 된다. 확인가치는 '예측 수정', 검증가능성은 '관찰자 합의 가능', 완전성은 '이해에 필요한 정보 포함', 측정불확실성은 '추정의 불확실성 자체'로 구분하면 판단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검증가능성은 단일 수치가 아니라 합리적 검토 가능성이며, 확인가치는 과거 판단의 확인·수정이다.

NoteBase

문 3.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추가로 입수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반영하여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②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③ 보고기간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사이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 보고기간말에 부채로 인식한다.

④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고기간후사건을 수정사항과 비수정사항으로 구분하고, 계속기업 가정 및 배당 선언의 회계처리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수정이 필요한 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말에 이미 존재하던 상황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이다.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말 후에 새로 발생한 상황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보고기간 후 배당 선언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현재의무가 아니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계속기업 가정은 보고기간 후에 청산 또는 영업중단 의도가 확정되면 적용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1번: O.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던 상황에 관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추가로 입수하면 그 정보를 반영하여 관련 공시를 수정한다. 보고기간말의 상태를 더 정확히 보여 주는 추가 증거이기 때문이다.
2번: O. 보고기간 후에 경영진이 청산 또는 경영활동 중단을 결정했거나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면 계속기업 가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다. 계속기업 가정의 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보고기간말에 부채로 인식한다'이다. 보고기간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사이에 선언한 배당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의무가 아니므로 보고기간말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올바르게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공시한다.
4번: O.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말의 인식금액을 바꾸는 사건이 아니므로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요하면 내용 공시는 필요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3번은 '배당 선언'만 보면 이익처분 예정액을 곧바로 부채로 연결하기 쉬운 점이 함정이다. 보고기간말 현재 의무가 있었는지와 보고기간 후에 새로 의무가 생겼는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틀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그 사건이 보고기간말에 이미 존재하던 상태의 추가 증거인지, 보고기간말 후에 새로 생긴 사실인지를 구분한다. 그다음 계속기업 가정 훼손 여부와 배당처럼 보고기간 후에 새로 확정된 의무인지를 확인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보고기간말 상태의 추가 증거는 수정, 보고기간 후 새 사실은 비수정, 보고기간 후 배당 선언은 부채 인식이 아니다.

NoteBase

문 4. 보조부문원가의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②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의 배분순서가 달라지면 배분 후의 결과가 달라지는 방법이다.

③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모두 고려한다.

④ 상호배분법이 직접배분법에 비해 적용과 계산이 간단한 방법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조부문원가 배부방법인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의 반영 범위와 계산 복잡도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직접배분법: 보조부문 상호 간 용역수수를 무시하고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만 바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키워드는 단순, 상호용역 미반영이다.
단계배분법: 보조부문 사이 용역을 일부 반영하되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한 방향으로만 순차 배분하는 방법이다. 키워드는 순차배분, 배분순서 영향이다.
상호배분법: 보조부문 상호 간 용역수수관계를 모두 반영하여 동시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키워드는 상호용역 완전반영, 계산 복잡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끼리 서로 서비스를 주고받은 사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맞다.

② O
단계배분법은 어느 보조부문을 먼저 배분하느냐에 따라 뒤에 남는 배분 구조가 달라진다. 따라서 배분순서가 달라지면 최종 배분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③ O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모두 반영하는 방법이다. 보조부문끼리의 상호 제공 용역까지 포함해 가장 완전하게 배분한다는 점에서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직접배분법에 비해 적용과 계산이 간단한 방법'이다. 실제로는 상호배분법이 보조부문 상호 간 용역까지 모두 반영하므로 직접배분법보다 적용과 계산이 더 복잡하다.

오답 포인트

상호배분법은 가장 정교하므로 더 우수하다는 인상 때문에 더 간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은 정확성과 계산 난이도를 뒤바꿔 놓은 ④의 표현을 잡아내는 문제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조부문 배부방법 문제는 먼저 상호용역을 전혀 무시하는지, 일부만 순차 반영하는지, 모두 반영하는지를 구분하면 된다. 그다음 반영 범위가 넓을수록 계산은 대체로 더 복잡해진다고 연결하면 선지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직접은 미반영, 단계는 순차 일부반영, 상호는 완전반영이자 계산 복잡이다.

NoteBase

문 5.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개발활동이 아닌 것은?

①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②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③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④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선택하는 활동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서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연구는 새로운 지식이나 대안을 탐색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아직 특정하지 못한 활동이다.
개발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 이전에 구체적인 제품·공정·시스템으로 설계하고 시험하는 단계이므로 실현 방향이 비교적 구체화된 활동이다.
따라서 '대안을 탐색·평가·최종선택'하는 표현은 연구의 키워드이고, '시제품 설계·제작·시험', '시험공장 설계·가동'은 개발의 키워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생산이나 사용 전에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제작·시험하는 활동은 연구성과를 실제 형태로 구현해 보는 개발단계의 예시이다.
② O.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지그·주형·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은 향후 생산에 투입할 구체적 설계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개발활동에 해당한다.
③ O. 상업적 생산 목적의 경제적 규모는 아니지만 시험공장을 설계·건설·가동하는 활동은 실용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개발단계의 전형적 예시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개발활동'이라는 판단이다.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용역에 대한 여러 대체안을 제안·설계·평가·최종선택하는 활동은 아직 대안을 탐색하고 고르는 단계이므로 연구활동이다. 올바르게는 '연구활동의 예시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설계'라는 단어 때문에 개발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설계 자체가 아니라 여러 대체안을 평가하고 최종선택하는 탐색 단계라는 점이다. 이 문제는 '구체적 구현'과 '대안 탐색'을 섞어 놓고 구분하는 함정을 둔 문항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시제품 제작, 시험공장 운영, 생산용 설계처럼 구현과 검증이 보이면 개발로 본다. 반대로 여러 가능성을 찾고 비교하고 고르는 표현이 보이면 연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연구는 대안 탐색·평가, 개발은 시제품·시험공장·구체적 설계이다.

NoteBase

문 6.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12월 31일 수정전시산표의 일부이다. 20×1년 12월 31일 (주)한국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 중인 재고자산이 전부 소실되었다. (주)한국의 매출총이익률이 40%인 경우 화재로 인해 소실된 기말재고자산은? (단, (주)한국은 재고자산을 실지재고조사법으로 기록하고 있다)

수정전시산표

재고자산	₩100,000	매출	₩510,000
매입	₩390,000	매입에누리와 환출	₩6,000
매입운임	₩30,000	매입할인	₩14,000
매출할인	₩10,000		

① ₩100,000
② ₩120,000
③ ₩180,000
④ ₩20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지재고조사법에서 매출총이익률을 이용해 화재로 소실된 기말재고자산을 추정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기초재고자산 100,000원, 매입 390,000원, 매입운임 30,000원, 매입에누리와 환출 6,000원, 매입할인 14,000원, 매출 510,000원, 매출할인 1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화재로 소실된 기말재고자산이다.
주의할 조건: 매출총이익률 40%는 순매출액 기준으로 적용하고,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말재고자산을 매출원가 추정 후 역산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순매출액 = 매출액 - 매출할인
매출총이익 = 순매출액 × 매출총이익률
매출원가 = 순매출액 - 매출총이익
기말재고자산 = 기초재고자산 + 순매입액 - 매출원가

이 공식을 쓰는 이유: 화재로 기말재고를 실사할 수 없으므로, 수정전시산표의 매출과 매입 자료로 매출원가를 추정한 뒤 기말재고자산을 역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순매출액은 510,000원 - 10,000원 = 500,000원이다.
2. 매출총이익은 500,000원 × 40% = 200,000원이다.
3. 매출원가는 500,000원 - 200,000원 = 300,000원이다.
4. 순매입액은 390,000원 + 30,000원 - 6,000원 - 14,000원 = 400,000원이다.
5. 매출가능상품원가는 100,000원 + 400,000원 = 500,000원이다.
6. 기말재고자산은 500,000원 - 300,000원 = 20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100,000원은 수정전시산표에 남아 있는 재고자산 장부금액일 뿐, 화재 후 추정한 기말재고자산이 아니다. 기말재고자산은 100,000원이 아니라 200,000원이다.
② X: 120,000원은 순매출액, 매출총이익, 순매입액을 연결해 계산한 결과와 맞지 않는다. 매출총이익률 40%를 적용하면 매출원가는 300,000원이므로 기말재고자산은 120,000원이 아니라 200,000원이다.
③ X: 180,000원은 매입 관련 차감항목이나 매출총이익 추정을 일부만 반영한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오답이다. 순매입액은 40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말재고자산은 180,000원이 아니라 200,000원이다.
④ O: 순매출액 500,000원, 매출총이익 200,000원, 매출원가 300,000원을 구한 뒤 매출가능상품원가 500,000원에서 차감하면 기말재고자산은 20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재고자산 100,000원을 그대로 기말재고로 착각하거나, 매출할인·매입에누리와 환출·매입할인을 반영하지 않고 계산하면 오답이 된다. 매출총이익률을 매출원가율과 혼동하는 실수도 자주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재손실로 기말재고를 묻는 문제는 순매출액을 먼저 구하고, 매출총이익률로 매출원가를 역산한 뒤, 매출가능상품원가에서 차감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화재재고 추정은 순매출액 → 매출총이익 → 매출원가 → 기말재고자산의 순서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은 재고자산에 대해 저가기준 선입선출소매재고법을 사용하고 있다.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기말재고자산은?

구분	원가	판매가
기초재고	₩ 10,000	₩ 20,000
순매입	₩ 180,000	₩ 300,000
순인상액	–	₩ 60,000
순인하액	–	₩ 10,000
순매출	–	₩ 250,000

① ₩60,000

② ₩70,000

③ ₩75,000

④ ₩8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저가기준 선입선출소매재고법에서 기말재고의 소매가와 당기 매입층 원가율을 구해 기말재고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기초재고 원가 10,000원, 기초재고 판매가 20,000원, 순매입 원가 180,000원, 순매입 판매가 300,000원, 순인상액 60,000원, 순인하액 10,000원, 순매출 25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기말재고자산의 원가이다.
주의할 조건: 저가기준 소매재고법이므로 원가율 계산에서 순인하액은 제외하고, 선입선출이므로 기말재고는 당기 매입층에서 남은 것으로 본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기말재고의 소매가 = 기초재고 판매가 + 순매입 판매가 + 순인상액 - 순인하액 - 순매출이다.
당기 매입층 원가율 = (당기 매입 원가)/(당기 매입 판매가 + 순인상액)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선입선출에서는 기초재고가 먼저 판매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기말재고는 당기 매입층에 속한다. 저가기준 소매재고법에서는 순인하액을 원가율 분모에서 제외해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계산 과정

1. 기말재고의 소매가는 20,000 + 300,000 + 60,000 - 10,000 - 250,000 = 120,000원이다.
2. 당기 매입층 원가율은 $\frac{180,000}{300,000+60,000} = \frac{180,000}{360,000} = 50\%$이다.
3. 기말재고자산은 120,000 × 50% = 60,0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O. 계산된 기말재고자산 60,000원과 일치한다.
2번: X. 70,00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진술은 기말재고자산이 60,000원이라는 것이다.
3번: X. 75,00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진술은 기말재고자산이 60,000원이라는 것이다.
4번: X. 80,00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진술은 기말재고자산이 60,000원이라는 것이다.

오답 포인트

순인하액 10,000원을 기말재고의 소매가 계산에는 반영하면서도 원가율 분모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또 선입선출이므로 기초재고를 기말재고에 남겨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판매된 것으로 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매재고법 문제는 먼저 기말재고의 소매가를 구한 뒤, 평균법인지 선입선출인지와 원가기준인지 저가기준인지를 확인해 원가율 분모에 포함할 항목을 정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저가기준 소매재고법은 순인하액을 원가율 분모에서 제외하고, FIFO 소매재고법은 기말재고를 당기 매입층으로 본다.

NoteBase

문 8. 다음 거래 중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X1년 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당기 발생한 미수임대료 ₩1,000
◯ 당기 인식한 수익 중 선수수익 해당액 ₩300
◯ 외상매출금 회수 ₩500
◯ 당기 발생한 미지급급여 ₩100
◯ 토지 최초 재평가증가액 ₩400

① ₩600 과소
② ₩800 과소
③ ₩1,000 과소
④ ₩1,500 과소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결산수정분개 누락이 당기순이익을 과대 또는 과소하게 만드는 방향을 구분한 뒤 순효과를 합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미수임대료 1,000원은 당기수익이므로 누락되면 당기순이익이 1,000원 과소된다.
선수수익 해당액 300원은 당기수익에서 빼야 하므로 누락되면 당기순이익이 300원 과대된다.
외상매출금 회수 500원은 자산의 대체이므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다.
미지급급여 100원은 당기비용이므로 누락되면 당기순이익이 100원 과대된다.
토지 최초 재평가증가액 400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므로 당기손익에 영향이 없다.

사용할 공식

보고된 당기순이익 왜곡액 = 미조정 후 당기순이익 - 올바른 당기순이익이다.
수익 누락은 음수, 비용 누락은 양수, 당기손익 비영향 항목은 0으로 본다.
왜곡액 = (-1,000) + 300 + 0 + 100 + 0 = -600
합계가 음수이면 보고된 당기순이익이 그 금액만큼 과소된 상태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미수임대료 누락으로 수익 1,000원이 빠져 당기순이익이 1,000원 과소된다.
2. 선수수익 조정 누락으로 수익 300원이 과다 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이 300원 과대된다.
3. 외상매출금 회수는 현금 증가와 매출채권 감소만 발생하므로 영향이 없다.
4. 미지급급여 누락으로 비용 100원이 빠져 당기순이익이 100원 과대된다.
5. 토지 재평가증가액은 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되어 당기손익 영향이 없다.
6. 따라서 순효과는 600원 과소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순효과는 $(-1{,}000) + 300 + 100 = -600$이므로 보고된 당기순이익은 ₩600 과소이다.
② X: ₩800 과소는 미지급급여 누락을 당기순이익 감소로 잘못 본 계산이다. 비용 누락은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100원 과대하게 만든다. 올바르게는 ₩600 과소이다.
③ X: ₩1,000 과소는 미수임대료만 반영하고 선수수익 300원과 미지급급여 100원의 과대 효과를 빼지 않은 값이다. 올바르게는 ₩600 과소이다.
④ X: ₩1,500 과소는 외상매출금 회수 500원을 수익 항목처럼 잘못 포함한 계산이다. 외상매출금 회수는 자산의 대체라서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다. 올바르게는 ₩600 과소이다.

오답 포인트

수정분개 문제에서는 수익·비용의 기간귀속과 당기손익 영향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외상매출금 회수처럼 손익에 영향이 없는 항목과 토지 재평가증가액처럼 기타포괄손익으로 가는 항목을 당기손익에 섞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결산수정분개 누락 문제는 각 항목을 수익 누락, 수익 과대, 비용 누락, 손익 무영향으로 먼저 분류한 뒤 마지막에 부호를 붙여 순효과를 합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미수수익 누락은 이익 과소, 미지급비용 누락은 이익 과대, 자산 대체와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손익 무영향이다.

NoteBase

문 9. (주)한국이 다음 거래를 수정분개 할 경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 12월 31일 소모품 계정잔액은 ₩30,000이나 실제 소모품 재고액은 ₩15,000이다.
◯ 11월 1일에 은행으로부터 ₩2,000,000(이자율 연 6%)을 차입하였다.
◯ 7월 1일 1년 만기 보험으로 ₩36,000을 지급하고 선급보험료로 회계처리하였다.
◯ 12월 31일 선급임차료 계정잔액이 ₩14,000이나 기간미경과분은 ₩9,000이다.
◯ 9월 1일 건물 임대계약으로 2년치 임대료 ₩240,000을 수령하고 선수임대료로 회계처리하였다.
◯ 10월 1일 정기예금(1년 만기, 이자율 연 6%)에 ₩1,000,000을 예금하였다.

① ₩3,000 감소
② ₩83,000 감소
③ ₩7,000 증가
④ ₩33,000 증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정분개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비용 증가와 수익 증가로 나누어 합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소모품 부족분, 차입이자, 선급보험료의 기간경과분, 선급임차료의 기간경과분, 선수임대료의 수익 전환액, 정기예금의 미수이자이다.
구해야 할 값은 수정분개 후 당기순이익의 순증가액 또는 순감소액이다.
주의할 조건은 기간을 월할 계산한다는 점과 4번이 선수임대료가 아니라 선급임차료라는 점이다.

사용할 공식

당기순이익 영향은 수익 증가액에서 비용 증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당기순이익 영향=수익 증가액-비용 증가액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수정분개가 결국 수익 또는 비용을 추가 인식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소모품은 장부잔액 30,000원에서 실제 재고 15,000원을 빼면 사용액 15,000원이므로 소모품비 15,000원을 인식해 당기순이익이 15,000원 감소한다.
2. 차입금 이자는 2,000,000원 × 6% × 2/12 = 20,000원이므로 이자비용 20,000원을 인식해 당기순이익이 20,000원 감소한다.
3. 선급보험료는 36,000원 × 6/12 = 18,000원이 비용으로 전환되므로 당기순이익이 18,000원 감소한다.
4. 선급임차료는 계정잔액 14,000원 중 기간미경과분이 9,000원이므로 기간경과분 5,000원을 임차료비용으로 인식해 당기순이익이 5,000원 감소한다.
5. 선수임대료는 240,000원 × 4/24 = 40,000원이 수익으로 전환되므로 당기순이익이 40,000원 증가한다.
6. 정기예금 이자는 1,000,000원 × 6% × 3/12 = 15,000원이므로 이자수익 15,000원을 인식해 당기순이익이 15,000원 증가한다.
7. 따라서 비용 증가액은 58,000원, 수익 증가액은 55,000원이므로
$55,000 - 58,000 = -3,000$
당기순이익은 3,000원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비용 증가 58,000원과 수익 증가 55,000원을 상계하면 당기순이익은 3,000원 감소한다. 계산 결과와 일치하므로 맞는 선지이다.

② X
83,000원 감소는 수익으로 전환되는 5번의 40,000원과 6번의 15,000원을 빠뜨리고 비용만 과대하게 본 값에 가깝다. 틀린 표현은 "83,000 감소"이고, 올바르게는 "3,000 감소"이다.

③ X
7,000원 증가는 4번 선급임차료의 기간경과분 5,000원을 수익 증가로 잘못 보거나 비용·수익의 방향을 혼동할 때 나오는 값이다. 틀린 표현은 "7,000 증가"이고, 올바르게는 "3,000 감소"이다.

④ X
33,000원 증가는 선수임대료와 이자수익만 보고 여러 비용 조정을 일부 누락할 때 나오는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33,000 증가"이고, 올바르게는 "3,000 감소"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4번의 선급임차료를 선수임대료처럼 읽어 수익 증가로 처리하는 실수이다. 또한 5번 선수임대료와 6번 이자수익은 수익 증가, 1번부터 4번까지는 비용 증가라는 방향 구분이 흔들리면 오답으로 연결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정분개 문제는 각 항목을 먼저 비용 증가인지 수익 증가인지 분류한 뒤, 기간경과분만 계산해서 마지막에 수익 합계와 비용 합계를 상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선급은 기간경과분이 비용, 선수는 기간경과분이 수익이 된다.

NoteBase

문 10. 20×1년 1월 1일 (주)한국과 (주)대한은 기계장치 A와 기계장치 B를 ₩1,000,000에 각각 취득하였다. 기계장치 A와 기계장치 B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3년 1월 1일 (주)한국은 기계장치 A를 (주)대한의 기계장치 B와 교환 후 기계장치 B에 대해 정액법(잔존내용연수 2년, 잔존가치 ₩200,000)으로 감가상각하였으며, 20×3년 7월 1일 (주)한국은 기계장치 B를 현금 ₩300,000에 처분하였다. (주)한국의 기계장치 B에 대한 회계처리가 20×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고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구분	기계장치 A	기계장치 B
내용연수	4년	4년
잔존가치	₩ 200,000	₩ 200,000
감가상각방법	연수합계법	정액법
20×3년 1월 1일 공정가치	₩ 540,000	₩ 570,000

① ₩25,000 감소

② ₩55,000 감소

③ ₩110,000 감소

④ ₩140,000 감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형자산 교환에서의 처분손익 인식과 교환 후 감가상각, 처분손익을 한 번에 연결해 20X3년 당기순이익 영향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기계장치 A와 B의 취득원가는 각각 1,000,000원, 잔존가치는 각각 200,000원, 내용연수는 각각 4년이다.
기계장치 A는 연수합계법, 기존 기계장치 B는 정액법을 적용한다.
20X3년 1월 1일 기계장치 A의 공정가치는 540,000원이고, 한국은 이를 대한의 기계장치 B와 교환한다.
교환 후 새 기계장치 B는 잔존내용연수 2년, 잔존가치 200,000원으로 정액법 감가상각을 한다.
20X3년 7월 1일 새 기계장치 B를 현금 300,000원에 처분하며,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구해야 할 값: 한국의 기계장치 B 관련 회계처리가 20X3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영향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기계장치 A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누적감가상각을 차감해 구한다.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대상금액 × 해당 연수 비율이다.
교환이익은 처분자산의 공정가치 - 처분시점 장부금액이다.
교환 후 기계장치 B의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 잔존가치) / 잔존내용연수 × 사용기간 비율이다.
처분손실은 처분대가 - 처분시점 장부금액으로 계산하며, 음수이면 손실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므로 교환 시점에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 B는 새로운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과 처분손익을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기계장치 A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이다.
2. 연수합계는 4 + 3 + 2 + 1 = 10이므로, 20X1년 감가상각비는 800,000원 × 4/10 = 320,000원, 20X2년 감가상각비는 800,000원 × 3/10 = 240,000원이다.
3. 따라서 20X3년 1월 1일 기계장치 A의 장부금액은 1,000,000원 - (320,000원 + 240,000원) = 440,000원이다.
4. 교환거래에서 인식하는 이익은 540,000원 - 440,000원 = 100,000원이다.
5. 교환 후 취득한 기계장치 B의 장부금액은 540,000원으로 보고, 연간 감가상각비는 (540,000원 - 200,000원) / 2년 = 170,000원이다.
6. 20X3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6개월 사용하므로 감가상각비는 170,000원 × 6/12 = 85,000원이다.
7. 처분 직전 장부금액은 540,000원 - 85,000원 = 455,000원이다.
8. 20X3년 7월 1일 처분손실은 300,000원 - 455,000원 = -155,000원이므로 155,000원 손실이다.
9. 20X3년 당기순이익 영향은 교환이익 100,000원 - 감가상각비 85,000원 - 처분손실 155,000원 = 140,000원 감소이다.

선지 판단

1번 X: '25,000 감소'가 틀렸다. 교환이익, 감가상각비, 처분손실을 모두 반영하면 순영향은 140,000원 감소이다. 25,000원은 감가상각비를 빠뜨리거나 교환이익을 잘못 섞어 계산할 때 나오는 오답값일 뿐이다. 올바르게는 '140,000원 감소'이다.
2번 X: '55,000 감소'가 틀렸다. 이는 교환이익 100,000원과 처분손실 155,000원만 반영하고, 20X3년 상반기 감가상각비 85,000원을 누락한 계산이다. 올바르게는 감가상각비까지 반영한 '140,000원 감소'이다.
3번 X: '110,000 감소'가 틀렸다. 이는 교환이익을 130,000원으로 잘못 잡거나 교환 시 공정가치 적용을 일관되게 하지 못할 때 나오는 수치이다. 문제 조건에 따라 계산하면 순영향은 140,000원 감소이다. 올바르게는 '140,000원 감소'이다.
4번 O: 교환이익 100,000원은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고, 감가상각비 85,000원과 처분손실 155,000원은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순효과는 100,000원 - 85,000원 - 155,000원 = 140,000원 감소이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교환거래에서 생긴 이익만 보고 끝내거나, 교환 후 새 기계장치 B에 대한 상반기 감가상각비를 누락하면 쉽게 틀린다. 기존 기계장치 A의 장부금액 계산, 교환이익 인식, 새 기계장치 B의 감가상각, 처분손실 계산을 한 흐름으로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형자산 교환 문제는 먼저 내준 자산의 장부금액을 구하고, 그다음 교환손익을 인식한 뒤, 새로 받은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감가상각과 최종 처분손익까지 순서대로 계산한다. 마지막에는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의 부호를 나누어 당기순이익 순영향을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유형자산 교환 순이익 영향은 내준 자산의 교환손익 + 받은 자산의 이후 감가상각 및 처분손익까지 이어서 본다.

NoteBase

문 1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A 부처 기타특별회계의 재정운영순원가는?

◯ 프로그램 수익 ₩30,000
◯ 비배분수익 ₩10,000
◯ 비교환수익 ₩12,000
◯ 프로그램 총원가 ₩200,000
◯ 비배분비용 ₩15,000
◯ 관리운영비 ₩50,000

① ₩213,000
② ₩225,000
③ ₩235,000
④ ₩237,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타특별회계 재정운영표에서 프로그램순원가와 재정운영순원가를 구분하고, 비교환수익의 반영 단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프로그램수익 30,000원, 비배분수익 10,000원, 비교환수익 12,000원, 프로그램총원가 200,000원, 비배분비용 15,000원, 관리운영비 5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재정운영순원가이다.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순원가가 아니라 재정운영결과를 구할 때 차감하는 항목이다.

핵심 구분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차감한 금액이다.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한 금액이다.
비교환수익은 여기서 빼지 않고, 마지막 단계인 재정운영결과를 구할 때만 차감한다.

계산 과정

프로그램순원가 = 200,000원 - 30,000원 = 170,000원이다.
재정운영순원가 = 170,000원 + 50,000원 + 15,000원 - 10,000원 = 225,000원이다.
따라서 비교환수익 12,000원은 아직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225,0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213,000원은 225,000원에서 비교환수익 12,000원을 한 번 더 차감한 값이다. 이는 재정운영순원가가 아니라 재정운영결과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 재정운영순원가가 213,000원이라는 판단이다.
올바른 표현: 재정운영순원가는 225,000원이고, 213,000원은 재정운영결과이다.

② O
프로그램순원가 170,000원에 관리운영비 50,000원과 비배분비용 15,000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10,000원을 차감하면 225,000원이 된다. 재정운영순원가 계산식에 맞는 값이다.

③ X
235,000원은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만 차감한 뒤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10,000원을 빼지 않은 값이다. 비배분수익은 재정운영순원가 계산에서 차감해야 한다.
틀린 표현: 비배분수익을 반영하지 않아도 재정운영순원가가 된다는 판단이다.
올바른 표현: 비배분수익은 재정운영순원가 계산에서 차감하므로 금액은 225,000원이다.

④ X
237,000원은 225,000원에 비교환수익 12,000원을 잘못 더한 값으로 볼 수 있다.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순원가를 늘리는 항목이 아니며, 재정운영결과를 구할 때 차감 방향으로 반영한다.
틀린 표현: 비교환수익을 재정운영순원가에 가산한다는 판단이다.
올바른 표현: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순원가에 더하지 않으며, 재정운영순원가는 225,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비배분수익과 비교환수익의 위치를 뒤섞는 데 있다. 비배분수익은 재정운영순원가 단계에서 차감하지만, 비교환수익은 그 다음 단계인 재정운영결과에서 차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부회계 계산형은 먼저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빼 프로그램순원가를 구하고, 그다음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해 재정운영순원가를 구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비교환수익이 보이면 그것은 재정운영결과 단계의 항목인지부터 먼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재정운영순원가까지는 비배분수익만 차감하고,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결과에서 차감한다.

NoteBase

문 12.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원가 계산 시 종합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할 경우 비정상공손원가는?

검사시점: 60%
공손수량: 총 1,000개 (정상공손 900개, 비정상공손 100개)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전공정원가 ₩8, 재료원가 ₩5, 가공원가 ₩10
재료는 공정의 80% 시점에 투입된다.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① ₩1,200
② ₩1,400
③ ₩1,800
④ ₩2,3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종합원가계산에서 비정상공손원가를 검사지점까지 발생한 원가만 반영하여 계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비정상공손은 100개이다.
검사시점은 공정 60%이다.
재료는 공정 80% 시점에 투입되므로 검사시점까지는 재료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공정원가는 단위당 8원이고, 가공원가는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10원이다.

사용할 공식

비정상공손원가는 검사지점까지의 단위당 원가에 비정상공손수량을 곱해 계산한다.
비정상공손원가 = 비정상공손수량 × ≤ft(전공정원가 + 검사지점까지의 가공원가 + 검사지점까지 투입된 재료원가)
이 문제의 비정상공손은 검사시점인 60%에서 판정되므로 그 시점까지 발생한 원가만 포함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전공정원가는 공정에 투입되는 순간 전액 부담하므로 단위당 8원을 전부 포함한다.
2.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발생하므로 검사시점 60%까지의 가공원가는 단위당 6원이다.
3. 재료는 공정 80% 시점에 투입되므로 검사시점 60%에서는 아직 투입되지 않아 단위당 0원이다.
4. 따라서 비정상공손 1개당 원가는 14원이고, 총 비정상공손원가는 100개 × 14원 = 1,4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1,200원은 가공원가를 60%가 아니라 40%만 반영한 값에 가깝다. 이 문항에서는 검사시점이 60%이므로 가공원가는 6원을 반영해야 하며, 올바르게는 1,400원이다.
2번 O: 전공정원가 8원과 검사시점까지의 가공원가 6원만 부담하고 재료원가는 아직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정상공손 100개의 원가는 1,400원이다.
3번 X: 1,800원은 재료 투입 전이라는 조건을 무시하고 가공원가 10원을 전부 반영한 값이다. 검사시점이 60%이므로 올바르게는 가공원가를 6원만 반영하여 1,400원이 된다.
4번 X: 2,300원은 재료원가 5원과 가공원가 10원을 모두 포함한 값이다. 재료는 80% 시점에 투입되므로 검사시점 60%에서는 포함되지 않으며, 올바르게는 1,400원이다.

오답 포인트

검사시점 60%와 재료투입시점 80%를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재료원가를 잘못 포함하기 쉽다. 또한 가공원가가 균등 발생한다는 조건을 놓치면 가공원가 전액을 넣어 1,800원이나 2,300원을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손 문제는 먼저 공손이 판정되는 시점을 찾고, 그 시점까지 어떤 원가요소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구분한 뒤, 마지막에 비정상공손수량을 곱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비정상공손원가는 공손 발견 시점까지 발생한 원가만 포함하며, 이후 시점에 투입되는 재료원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13. 재무상태표상 자본총액이 증가하는 거래는?

① 액면금액 ₩5,000인 보통주를 주당 ₩4,000에 할인발행하였다.

② 자기주식처분이익 중 ₩10,000을 자본금으로 대체하였다.

③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 ₩6,000을 결의하였다.

④ 보통주 액면금액 ₩5,000을 ₩500으로 분할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각 거래가 자본의 구성항목만 바꾸는지, 아니면 자본총액 자체를 증가시키는지를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보기들은 모두 자본과 관련된 거래이다.
핵심 사실 2: 자본금 증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본총액의 순증가가 있어야 한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자본 내부 대체인지, 외부에서 순자산이 실제로 유입되는 거래인지가 핵심이다.

핵심 개념

자본총액 증가는 자산의 순유입이나 부채의 순감소로 순자산이 커질 때 발생한다.
자본 내부 대체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사이의 재분류일 뿐이므로 자본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적용 기준

이 문항에서는 거래 후 순자산이 실제로 늘어나는지를 본다. 외부에서 현금 등이 들어오면 자본총액이 증가할 수 있고, 자본 항목 사이의 이동이나 주식 수만 바꾸는 거래라면 자본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액면금액 5,000원인 보통주를 4,000원에 할인발행하면 현금 4,000원이 유입된다. 자본에는 자본금 5,000원이 증가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1,000원이 차감되어 순자본이 4,000원 증가하므로 자본총액이 증가한다.
② X: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자본잉여금 성격의 항목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자본 내부 대체이다. 틀린 표현은 이 거래가 자본총액을 늘린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고, 올바르게는 자본금의 구성만 바뀔 뿐 자본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③ X: 주식배당을 결의하면 이익잉여금을 자본금 등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생길 뿐 외부 자원이 새로 유입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주식배당 결의가 자본총액을 증가시킨다는 취지이고, 올바르게는 이익잉여금이 다른 자본항목으로 재분류되어 자본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④ X: 주식분할은 액면금액과 주식 수를 조정하는 거래일 뿐 회사의 순자산을 늘리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액면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바꾸면 자본총액이 증가한다는 취지이고, 올바르게는 주식분할은 자본금 총액과 자본총액을 그대로 둔 채 주식 수와 액면만 바꾼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은 자본금이 늘어나는 모습만 보고 자본총액도 늘어난다고 착각하기 쉽다. 이 문제의 함정은 자본금 증가 여부가 아니라 자본 전체의 순증가 여부를 물었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본 관련 거래는 먼저 외부에서 자산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자본 항목끼리만 옮긴 것인지를 나누어 본다. 외부 순유입이 있으면 자본총액 증가 가능성이 있고, 재분류나 주식분할이면 자본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할인발행은 순자산 유입이 있고, 자본대체와 주식분할은 자본총액을 바꾸지 않는다.

NoteBase

문 1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거래가격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할 때는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과 고객이 별도 금융거래를 한다면 반영하게 될 할인율을 사용한다.

②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한 계약의 개시 후에 이자율이나 그 밖의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 할인율을 새로 수정한다.

③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를 인식한다.

④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라면, 다른 공급자에게서 구매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거래가격 산정에서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할인율 처리와 환불부채·고객지급대가의 회계처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고객과 기업 사이에 사실상 금융제공이 포함된 경우 약속한 대가를 현재가치로 조정하는 개념이다. 이때 할인율은 계약 개시시점에 별도 금융거래를 한다면 반영될 이자율로 정하며, 개시 후 시장이자율이나 신용위험이 변해도 다시 고치지 않는다.
환불부채는 고객에게 대가를 돌려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 인식하는 부채이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라면 일반적인 매입거래처럼 회계처리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할 때는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과 고객이 별도 금융거래를 한다면 적용될 할인율을 사용한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할인율을 새로 수정한다'이다.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할인율은 계약 개시시점에 정하며, 이후 이자율이나 그 밖의 상황이 달라져도 새로 수정하지 않는다.
③ O: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면 그 예상 환불액에 대해 환불부채를 인식하므로 옳다.
④ O: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라면 다른 공급자에게서 구매한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이자율 문제로만 보고 사후 금리변동이 생기면 할인율도 다시 바뀐다고 오해하기 쉽다. 이 문항은 할인율을 언제 확정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며, 핵심 기준시점은 계약 개시시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거래가격 선지는 먼저 항목을 나눠서 본다. 금융요소가 나오면 할인율의 확정시점이 계약 개시시점인지 확인하고, 환불 가능성이 나오면 환불부채 인식 여부를 본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나오면 그것이 구별되는 재화·용역의 대가인지부터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유의적 금융요소는 개시시점 할인율 고정, 환불 예상액은 환불부채, 구별되는 고객 제공 재화·용역은 매입거래 처리이다.

NoteBase

문 15.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③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④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 기타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의 인식기준, 유산자산과 국가안보 관련 자산의 예외,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유산자산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큰 자산으로서 회계상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대상이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자산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다만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예외이고, 국가안보 관련 자산은 협의 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어도 별도의 장부 기록의무는 남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자산 인식기준을 그대로 묻는 선지이다.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② O
- 유산자산은 회계상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종류와 현황 등을 공시하는 예외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이므로 선지의 취지는 맞다.

③ X
-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협의 주체와 후속 조치가 선지와 다르다.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틀린 표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와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 올바른 표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O
-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와 예시를 설명한 선지이다. 국가의 기반 형성을 위해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 나타나는 자산이며, 도로·철도·항만·댐·공항·하천·상수도·국가어항·기타 사회기반시설과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이 포함된다.

오답 포인트

③은 국가안보 관련 자산의 예외를 묻는 듯 보이지만 실제 함정은 예외 인정 자체가 아니라 협의 주체와 별도 장부 기록의무이다. ②에서는 유산자산을 가치가 크므로 자산으로 인식한다고 착각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가회계기준 문제는 먼저 원칙적으로 자산 인식인지, 예외적으로 미인식 대상인지 나눈다. 그다음 예외가 나오면 협의 주체, 공시 여부, 별도 장부 기록 같은 후속 조치를 끝까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유산자산은 미인식·공시, 안보자산은 미인식 가능·별도 장부, 사회기반시설은 국가기반·장기효과이다.

NoteBase

문 16.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비품을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비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비품에 대해 20×2년 12월 31일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손상차손환입)은? (단, 자산의 회수가능액 변동은 비품의 손상 혹은 그 회복에 따른 것이라고 가정하며,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 취득원가: ₩1,000,000
◯ 잔존가치: ₩0
◯ 내용연수: 5년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회수가능액

20×1년 말	20×2년 말
₩400,000	₩800,000

① 손상차손 ₩200,000
② 손상차손 ₩300,000
③ 손상차손환입 ₩200,000
④ 손상차손환입 ₩30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손상차손을 인식한 비품의 후속 감가상각과 손상차손환입 한도를 함께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취득원가 1,000,000원, 잔존가치 0원,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이다.
20×1말 회수가능액은 400,000원, 20×2말 회수가능액은 80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20×2년 12월 31일에 인식할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 금액이다.
주의할 조건: 손상 인식 후에는 손상된 장부가액을 남은 내용연수로 다시 감가상각하고, 환입은 손상이 없었다면 계산되었을 장부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이다.
손상차손은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손상차손환입은 회수가능액 증가분 전부가 아니라 환입 전 장부가액과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가액 사이의 범위까지만 가능하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이 문항이 20×1말 손상 인식, 20×2 감가상각, 20×2말 환입 한도를 순서대로 따져야 하는 유형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연간 감가상각비는 1,000,000원 ÷ 5년 = 200,000원이다.
2. 20×1말 손상 인식 전 장부가액은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이다.
3. 20×1말 회수가능액은 400,000원이므로 손상차손 400,000원을 인식하여 장부가액은 400,000원이 된다.
4. 20×2에는 손상 후 장부가액 400,000원을 남은 4년으로 감가상각하므로 20×2 감가상각비는 100,000원이고, 환입 전 장부가액은 300,000원이다.
5. 손상이 없었다면 20×2말 장부가액은 1,0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600,000원이다.
6. 20×2말 회수가능액 800,000원은 충분히 크지만 환입 후 장부가액은 600,000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환입 가능액은 600,000원 - 300,000원 = 300,0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20×2말에는 회수가능액 800,000원이 환입 전 장부가액 300,000원보다 크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할 상황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손상차손 200,000원이 아니라 손상차손환입 300,000원이다.
2번 X: 방향은 환입이 아니라 손상차손으로 제시한 점부터 틀렸다. 또한 금액도 틀리며, 환입 전 장부가액 300,000원에서 무손상 기준 장부가액 600,000원까지 올릴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는 손상차손환입 300,000원이다.
3번 X: 환입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금액이 부족하다. 200,000원은 손상 후 장부가액 400,000원을 20×2말 장부가액으로 잘못 보고 600,000원과 비교할 때 나오는 오답이며, 올바르게는 20×2 감가상각 100,000원을 반영한 뒤 손상차손환입 300,000원을 인식한다.
4번 O: 20×2말 환입 전 장부가액은 300,000원이고, 환입 상한은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가액 600,000원이다. 따라서 300,000원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

오답 포인트

손상 인식 후에도 원래 감가상각비 200,000원을 계속 쓰거나, 반대로 20×2 감가상각 자체를 빼먹으면 오답이 나온다. 또 회수가능액 800,000원까지 전부 환입할 수 있다고 보면 환입 한도를 놓치게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형자산 손상 문제는 손상 전 장부가액 계산, 손상 인식, 손상 후 감가상각, 무손상 기준 장부가액과의 환입 한도 비교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손상 후 감가상각은 새 장부가액 기준이며, 환입은 회수가능액이 아니라 무손상 기준 장부가액이 상한이다.

NoteBase

문 17. 20×1년 1월 1일 (주)한국은 채무상품을 ₩952,000에 발행하였다. 채무상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은 20×1년 4월 1일 (주)한국이 발행한 채무상품을 ₩981,000(미수이자 포함)에 취득하여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대한이 채무상품의 취득일부터 만기일까지 인식할 총 이자수익은? (단, (주)대한은 20×3년 말까지 채무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 액면금액: ₩1,000,000(만기 3년)
◯ 표시이자율: 연 10%(매년 말 이자지급)

① ₩294,000
② ₩300,000
③ ₩319,000
④ ₩348,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미수이자가 포함된 채무상품 취득가액을 깨끗이 분리한 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총 이자수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액면금액은 1,000,000원이고 표시면이자율은 연 10%이므로 연간 현금이자는 100,000원이다.
대한이 20x1년 4월 1일 지급한 981,000원에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의 미수이자 2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 시작금액은 981,000원-25,000원=956,000원이다.

사용할 공식

총 이자수익은 취득 후 회사에 실제로 귀속되는 쿠폰이자와 할인차금 상각액의 합계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미수이자 포함 매입에서는 지급액 전부가 금융자산 원가가 아니고, 미수이자는 이후 회수되는 채권이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x1년 말 수령하는 100,000원 중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25,000원은 취득 시 함께 산 미수이자 환급분이므로 수익이 아니다.
2. 따라서 취득 후 귀속되는 쿠폰이자는 20x1년분 75,000원, 20x2년분 100,000원, 20x3년분 100,000원으로 합계 275,000원이다.
3. 상각후원가 시작금액 956,000원이 만기에 1,000,000원으로 회수되므로 할인차금 상각액은 44,000원이다.
4. 총 이자수익은 275,000원+44,000원=319,0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294,000원은 미수이자를 제외한 쿠폰이자 275,000원에 만기상각 19,000원만 더한 값이다. 이는 미수이자 포함 매입가 981,000원을 그대로 상각후원가 출발점으로 본 착오이다. 올바르게는 시작금액을 956,000원으로 잡아 할인차금 상각 44,000원을 반영해야 한다.
2번 X: 300,000원은 3번의 표시면이자 현금 100,000원씩만 단순 합산한 값이다. 20x1년 말 이자 중 25,000원은 취득 전에 이미 발생한 미수이자 회수분이고, 44,000원의 할인차금 상각도 이자수익에 포함된다. 올바르게는 총 이자수익이 319,000원이다.
3번 O: 취득 후 귀속되는 쿠폰이자 275,000원에 할인차금 상각 44,000원을 더하면 319,000원이다. 미수이자 포함 매입에서는 981,000원 중 미수이자 25,000원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4번 X: 348,000원은 3년 쿠폰 300,000원에 발행 시 전체 할인 48,000원을 그대로 더한 값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한은 발행일에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발행할인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취득시점 이후 남아 있는 할인차금 44,000원만 이자수익에 포함된다.

오답 포인트

출제자가 노린 함정은 미수이자 포함 매입가 981,000원을 그대로 금융자산 원가로 보는 착각이다. 이 착각을 하면 20x1년 말 이자 중 취득 전 기간 이자 25,000원을 수익으로 잘못 잡거나, 남은 할인차금 44,000원 대신 다른 금액을 상각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채무상품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취득하면 먼저 지급액에서 미수이자를 분리하고, 그 다음 남은 금액을 상각후원가 시작금액으로 둔다. 이후 총 이자수익은 취득 후 귀속 쿠폰이자와 만기까지의 할인차금 상각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미수이자 포함 매입은 지급액 전부가 원가가 아니며, 총 이자수익은 취득 후 쿠폰이자와 남은 할인차금 상각액의 합이다.

NoteBase

문 18. A 부처는 20×1년 12월 1일에 국내단기차입금 ₩10,000,000,000과 그 이자 ₩1,000,000,000을 채권채무재조정하여 원금 ₩8,000,000,000과 이자비용 ₩500,000,000으로 채무를 일부 면제받기로 합의하고 미지급금으로 대체하였다. A 부처의 20×1년 12월 1일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부처는 국내단기차입금에 대해 기말에 이자비용을 인식하며, 「국가회계예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① 미지급금 ₩8,500,000,000을 대변에 인식한다.

② 국내단기차입금 ₩10,000,000,000을 차감한다.

③ 국내차입금이자비용 ₩1,000,000,000을 차변에 인식한다.

④ 채무면제이익 ₩2,000,000,000을 대변에 인식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채권채무재조정 시 기존 채무 총액과 재조정 후 남는 채무 총액을 비교하여 미지급금, 이자비용, 채무면제이익을 올바르게 분개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기존 국내단기차입금은 10,000,000,000원이다.
- 아직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이자는 1,000,000,000원이다.
- 재조정 후 부담하는 금액은 원금 8,000,000,000원과 이자 500,000,000원으로 합계 8,500,000,000원이다.
- A 부처는 기말에 이자비용을 인식하므로, 12월 1일 재조정 시점에 기존 이자 1,000,000,000원을 당기 비용으로 함께 반영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채무면제이익 = 소멸하는 기존 채무 총액 - 재조정 후 남는 채무 총액
채무면제이익 = (10,000,000,000 + 1,000,000,000) - (8,000,000,000 + 500,000,000) = 2,500,000,000
이 식을 쓰는 이유는 채무재조정이 기존 지급의무를 없애고 새로운 지급의무만 남기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소멸하는 기존 의무 총액은 국내단기차입금 10,000,000,000원과 기존 이자 1,000,000,000원을 합한 11,000,000,000원이다.
2. 재조정 후 남는 의무는 원금 8,000,000,000원과 이자 500,000,000원을 합한 8,500,000,000원이다.
3. 차액 2,500,000,000원이 채무면제이익이다.
4. 따라서 분개는 차변에 국내단기차입금 10,000,000,000원, 국내차입금이자비용 1,000,000,000원을 적고 대변에 미지급금 8,500,000,000원, 채무면제이익 2,500,000,000원을 적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재조정 후 실제로 남는 지급의무는 원금 8,000,000,000원과 이자 500,000,000원의 합계 8,500,000,000원이므로 미지급금 8,500,000,000원을 대변에 인식한다.
② O : 기존 국내단기차입금 10,000,000,000원은 채권채무재조정으로 소멸하므로 차변에 전액 인식한다.
③ O : 기존 이자 1,000,000,000원은 아직 장부에 잡히지 않았더라도 재조정 시점에 소멸하는 의무에 포함되므로 국내차입금이자비용 1,000,000,000원을 차변에 인식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채무면제이익 2,000,000,000원"이다. 올바르게는 "채무면제이익 2,500,000,000원을 대변에 인식한다"이다. 기존 의무 11,000,000,000원에서 재조정 후 의무 8,500,000,000원을 차감해야 하므로 면제이익은 2,500,00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원금만 비교하여 10,000,000,000원에서 8,000,000,000원을 뺀 2,000,000,000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이 문항은 아직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기존 이자 1,000,000,000원과 재조정 후 남는 이자 500,000,000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노린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채무재조정 문제는 먼저 없애는 채무 총액을 모두 모은 다음, 재조정 후 남기는 채무 총액을 합산하여 둘의 차이를 이익이나 손실로 판단한다. 아직 미인식된 이자라도 재조정 대상에 포함되면 분개 시점에 함께 반영한다.

암기 포인트

채무면제이익은 없애는 채무 총액에서 남기는 채무 총액을 뺀 금액이며, 미인식 이자도 재조정 대상이면 함께 계산한다.

NoteBase

문 19. 다음 자료를 이용한 자기자본순이익률은? (단, 비율 계산 시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연평균금액으로 한다)

◯ 매출액 ₩50,000
◯ 당기순이익 ₩2,000
◯ 기말 총자산은 기초 총자산의 3배이다.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은 기초와 기말 모두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대1로 일정하다.
◯ 총자산회전율 2.5회

① 20 %
② 25 %
③ 30 %
④ 40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총자산회전율로 평균 총자산을 구한 뒤,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중을 적용해 평균 자기자본을 계산하고 자기자본순이익률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매출액 50,000, 당기순이익 2,000, 총자산회전율 2.5회이다.
관계: 기말 총자산은 기초 총자산의 3배이다.
자본구성: 기초와 기말 모두 타인자본 : 자기자본 = 1 : 1이므로 자기자본은 총자산의 1/2이다.
주의할 조건: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모두 기초와 기말의 평균금액을 사용한다.

사용할 공식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 평균 자기자본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총자산회전율과 당기순이익이 주어졌고, 자기자본순이익률은 평균 자기자본을 분모로 계산하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평균 총자산은 50,000/2.5 = 20,000이다.
2. 기초 총자산을 A라 하면 기말 총자산은 $3A$이고, 평균 총자산은 $(A + 3A)/2 = 2A$이므로 $2A = 20{,}000$, 따라서 기초 총자산은 10,000, 기말 총자산은 30,000이다.
3. 자기자본은 총자산의 절반이므로 기초 자기자본은 5,000, 기말 자기자본은 15,000, 평균 자기자본은 $(5{,}000 + 15{,}000)/2 = 10{,}000$이다.
4. 자기자본순이익률은 2,000/10,000 = 0.2이므로 20%이다.

선지 판단

① O: 계산 결과 자기자본순이익률은 20%이므로 옳다.
② X: 25%가 되려면 평균 자기자본이 8,000이어야 하는데 실제 평균 자기자본은 10,000이다. 틀린 판단은 평균 자기자본을 더 작게 잡는 계산이고, 올바르게는 기초 5,000과 기말 15,000의 평균인 10,000을 사용해야 한다.
③ X: 30%가 되려면 평균 자기자본이 약 6,666.7이어야 하므로 주어진 자료와 맞지 않는다. 틀린 판단은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중 1/2와 평균 사용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이고, 올바르게는 평균 자기자본 10,000을 분모로 본다.
④ X: 40%는 당기순이익 2,000을 기초 자기자본 5,000으로 나눌 때 나오는 값이라서 평균 조건을 무시한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기초금액만으로 자기자본순이익률을 계산하는 것이고, 올바르게는 기초와 기말 자기자본의 평균 10,000을 사용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총자산회전율로 평균 총자산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점과 자기자본순이익률의 분모가 평균 자기자본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특히 ④처럼 기초 자기자본만 분모에 넣으면 40%가 바로 나오므로 평균 조건을 무시한 계산이 대표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익성 비율 문제는 회전율로 평균 자산을 역산하고, 자본구성 비율로 평균 자기자본을 구한 뒤,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을 나누는 순서로 판단한다. 문제에 평균 사용 조건이 있으면 기초값이나 기말값 단독 사용을 바로 배제한다.

암기 포인트

자기자본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평균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며, 회전율이 주어지면 평균 총자산부터 역산한다.

NoteBase

문 20. (주)한국의 20X1년 기초 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며, 20X1년도 보통주식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X1년 당기순이익이 ₩13,600,000인 경우 기본주당이익은? (단, 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4월 1일: 보통주 2,000주를 시장가격으로 유상증자하였다.
10월 1일: 무상증자 20%를 실시하였다.
11월 1일: 자기주식 1,200주를 취득하였다.

① ₩1,000
② ₩1,150
③ ₩1,200
④ ₩1,36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무상증자를 소급 반영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기초 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다.
- 4월 1일 유상증자로 2,000주가 발행되어 4월부터 12,000주가 된다.
- 10월 1일 무상증자 20%는 주식배당과 같은 성격이므로 연초부터 소급 반영한다.
- 11월 1일 자기주식 1,200주 취득은 유통주식수 차감 항목이므로 11월부터 2개월 반영한다.
- 구해야 할 값은 기본주당이익이다.

사용할 공식

기본주당이익은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구한다.
EPS = (당기순이익)/(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당기순이익과 연도 중 보통주식수 변동 내역이 함께 주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무상증자는 기업에 추가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므로 이전 기간 주식수에도 소급 반영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10월 1일 무상증자 20%를 소급 반영하면 기초 10,000주는 12,000주, 4월 1일 이후의 12,000주는 14,400주 기준으로 본다.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다.
$12{,}000 \times \frac{3}{12} + 14{,}400 \times \frac{7}{12} + 13{,}200 \times \frac{2}{12} = 13{,}600$
여기서 14,400주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13,200주는 자기주식 취득 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반영한 값이다.
3. 기본주당이익은 다음과 같다.
$EPS = \frac{13{,}600{,}000}{13{,}600} = 1{,}000$
따라서 기본주당이익은 1,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 결과 기본주당이익은 1,000원이므로 옳은 선지이다.

② X
-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기본주당이익은 1,150원이 아니라 1,000원이다.
- 무상증자의 소급반영 범위나 자기주식 취득 시점을 일부만 반영하면 분모가 왜곡되어 이런 오답이 나온다.

③ X
-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기본주당이익은 1,2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다.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13,600주보다 작게 잡으면 이런 과대 계산이 생긴다.

④ X
- 13,600,000원을 기초주식수 10,000주로만 나누면 1,360원이 되지만, 이는 연도 중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자기주식 취득을 무시한 값이다.
- 기본주당이익은 1,360원이 아니라 1,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무상증자는 발행 시점부터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소급 반영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또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가 아니라 유통주식수에서 차감하므로 11월과 12월의 분모를 줄여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당이익 계산 문제는 먼저 주식수 변동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자기주식 중 무엇인지 구분한 뒤, 무상증자는 소급 반영하고 나머지는 발생 시점부터 월할 계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기본주당이익은 당기순이익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이며, 무상증자는 소급 반영하고 자기주식은 분모에서 차감한다.

NoteBase

문 21. (주)한국은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직접법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주)한국의 20×1년 재무상태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 매출원가가 ₩1,000,000일 경우 매입처에 대한 현금유출액은? (단, 선급금은 재고자산 매입과 관련되어 있다)

20×1. 12. 31. / 20×1. 1. 1.
매출채권: ₩420,000 / ₩450,000
선급금: ₩80,000 / ₩90,000
재고자산: ₩120,000 / ₩100,000
선급임차료: ₩60,000 / ₩90,000
매입채무: ₩90,000 / ₩120,000
미지급급여: ₩50,000 / ₩20,000

① ₩1,010,000
② ₩1,020,000
③ ₩1,030,000
④ ₩1,04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직접법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 매입처에 대한 현금유출액을 구하기 위해 매출원가로부터 매입액을 역산하고, 재고자산 관련 선급금과 매입채무의 증감을 반영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매출원가 1,000,000원
- 기초재고자산 100,000원, 기말재고자산 120,000원
- 기초선급금 90,000원, 기말선급금 80,000원
- 기초매입채무 120,000원, 기말매입채무 90,000원

구해야 할 값:
- 매입처에 대한 현금유출액

주의할 조건:
- 선급금은 재고자산 매입 관련 항목만 반영한다.
- 매출채권, 선급임차료, 미지급급여는 이 계산과 직접 관련이 없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먼저 매입액을 구한다.

$P = COGS + EI - BI$

그다음 매입처 현금유출액을 구한다.

$C = P + (AP_{beg} - AP_{end}) - (PP_{beg} - PP_{end})$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매출원가에는 당기 매입액이 바로 주어지지 않으므로 재고자산 증감으로 매입액을 역산해야 한다. 이후 외상매입금인 매입채무의 감소는 추가 현금지출이고, 재고 매입 관련 선급금의 감소는 이전에 이미 지급한 금액을 당기에 매입으로 대체한 것이므로 당기 현금지출에서 차감된다.

계산 과정

1. 매입액을 계산한다.

$P = 1,000,000 + 120,000 - 100,000 = 1,020,000$

2. 매입채무 감소액을 계산한다.

$AP_{beg} - AP_{end} = 120,000 - 90,000 = 30,000$

3. 선급금 감소액을 계산한다.

$PP_{beg} - PP_{end} = 90,000 - 80,000 = 10,000$

4. 매입처에 대한 현금유출액을 계산한다.

$C = 1,020,000 + 30,000 - 10,000 = 1,040,000$

따라서 매입처에 대한 현금유출액은 1,040,0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1,010,000원은 매입액 1,020,000원에서 선급금 감소 10,000원만 차감하고 매입채무 감소 30,000원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 틀린 표현은 현금유출액을 1,010,000원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매입채무 감소 30,000원을 더해 1,040,000원이어야 한다.

② X
- 1,020,000원은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으로 계산한 매입액일 뿐, 현금유출액이 아니다.
- 틀린 표현은 매입액과 현금유출액을 같게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매입채무 감소와 선급금 감소를 함께 반영해 1,040,000원으로 본다.

③ X
- 1,030,000원은 매입액 1,020,000원에 선급금 감소 10,000원을 잘못 더한 값이다.
- 틀린 표현은 선급금 감소를 당기 추가 현금지출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선급금 감소는 과거 지급액의 사용이므로 당기 현금유출액에서 차감한다.

④ O
- 매입액 1,020,000원에 매입채무 감소 30,000원을 더하고 선급금 감소 10,000원을 차감하면 1,040,000원이 된다.
- 직접법에서 매입처 현금유출액은 매입액을 현금기준으로 바꾸는 조정까지 마친 금액이므로 ④가 옳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선급금과 매입채무의 방향을 반대로 처리하는 점이다. 이 문항에서는 선급금이 재고자산 매입 관련이라는 단서가 핵심이며, 선급금 감소는 이미 지급한 돈의 소멸이므로 당기 현금유출을 줄인다. 또 매출채권, 선급임차료, 미지급급여처럼 표에 함께 제시된 다른 계정에 시선이 분산되기 쉽지만 계산에는 쓰이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직접법 매입처 현금유출 문제는 먼저 매출원가에서 재고 증감을 반영해 매입액을 구하고, 그다음 매입채무는 감소하면 더하고 증가하면 빼며, 재고 관련 선급금은 감소하면 빼고 증가하면 더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매입처 현금유출액은 매입액에서 출발하고, 매입채무 감소는 더하고 재고 관련 선급금 감소는 뺀다.

NoteBase

문 22. 조업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가-조업도-이익분석에서 사용되는 조업도는 판매량 혹은 생산량을 의미한다.

②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은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을 기준조업도로 나눈 것이다.

③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 차이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실제액과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의 차이이다.

④ 기준조업도는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에 배부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직접노무시간 예산, 기계가동시간 예산, 생산량 예산 등으로 표현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원가-조업도, 기준조업도,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의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원가-조업도는 원가-조업도-이익분석에서 원가 변동의 기준이 되는 활동수준으로, 보통 판매량이나 생산량을 뜻한다.
기준조업도는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에 배부하기 위해 미리 정한 조업수준으로,
직접노무시간·기계가동시간·생산량 등으로 표현된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기준조업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산배부액과 실제 조업에 배부된 금액의 차이이며, 실제 고정제조간접원가 자체와 예산액의 차이는 예산차이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원가-조업도-이익분석의 조업도는 활동수준을 뜻하므로 판매량이나 생산량으로 잡는 설명이 맞다.
2번 O: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은 예산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기준조업도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설명이 맞다.
3번 X: 틀린 부분은 "고정제조간접원가 실제액과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액의 차이"이다. 이것은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차이의 설명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액과 배부액의 차이로 보아야 한다.
4번 O: 기준조업도는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에 배부하기 위한 기준량이므로 직접노무시간 예산, 기계가동시간 예산, 생산량 예산 등으로 표현된다는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는 예산차이와 조업도차이를 자주 뒤바꾼다. 실제액이 들어가면 예산차이이고, 기준조업도 대비 배부 정도를 따지면 조업도차이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 문제는 먼저 실제액이 들어가는지, 기준조업도와 배부액이 들어가는지를 구분한다. 실제액과 예산액의 비교이면 예산차이이고, 예산액과 배부액의 비교이면 조업도차이이다.

암기 포인트

실제액이 보이면 예산차이, 기준조업도가 보이면 조업도차이이다.

NoteBase

문 23. (주)한국은 20X1년 1월 1일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전환사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3년 초 액면금액 100 %에 해당하는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 (주)한국이 인식해야 할 주식발행초과금은? (단, 전환권대가는 전환권이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될 때 행사된 부분만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

◯ 액면금액: ₩ 1,000,000(만기 3년)
◯ 표시이자율: 연 0 %
◯ 발행일 현재 일반사채 시장수익률: 연 12 %
◯ 원금상환방법: 상환기일에 액면금액 일시상환
◯ 전환조건: 사채 액면금액 ₩10,000당 보통주 1주(액면금액 ₩5,000)로 전환가능

○ 단일금액 ₩ 1의 현가계수

기간	1	2	3
현가계수(12 %)	0.89286	0.79719	0.71178

① ₩ 288,220
② ₩ 392,860
③ ₩ 681,080
④ ₩ 892,86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환사채의 부채요소 장부금액과 전환권대가를 함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는 전환 시점 회계처리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액면금액 1,000,000원, 만기 3년, 표시이자율 0%, 시장수익률 연 12%, 액면발행이다.
구해야 할 값: 20×3년 초 전환 시 인식할 주식발행초과금이다.
주의할 조건: 전환권대가는 행사된 부분만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보통주 액면금액 5,000원을 자본금으로 분리해야 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전환사채 발행 시 부채요소 = 만기상환액의 현재가치 = 1,000,000원 × 0.71178 = 711,780원이다.
전환권대가 = 발행금액 - 부채요소 = 1,000,000원 - 711,780원 = 288,220원이다.
전환 시 주식발행초과금 = 전환 시점 부채 장부금액 + 대체되는 전환권대가 - 발행주식의 자본금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전환 시에는 사채부채를 제거하고 기존 자본항목인 전환권대가를 보통주 자본으로 재분류하며, 그중 액면금액 초과분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발행 시 부채요소는 1,000,000원 × 0.71178 = 711,780원이다.
2. 전환권대가는 1,000,000원 - 711,780원 = 288,220원이다.
3. 20×3년 초에는 만기까지 1년이 남으므로 부채 장부금액은 1,000,000원 × 0.89286 = 892,860원이다.
4. 전환비율은 사채 액면금액 10,000원당 보통주 1주이므로 총 발행주식수는 1,000,000원 ÷ 10,000원 = 100주이다.
5. 자본금은 100주 × 5,000원 = 500,000원이다.
6. 따라서 주식발행초과금은 892,860원 + 288,220원 - 500,000원 = 681,08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288,220원은 발행 시점의 전환권대가만 반영한 값이다. 전환 시에는 부채 장부금액 892,860원도 함께 자본으로 대체하고 자본금 500,000원을 차감해야 하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은 전환권대가만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을 계산한 점이고, 올바르게는 892,860원 + 288,220원 - 500,000원을 계산해야 한다.
② X: 392,860원은 전환 시점 부채 장부금액 892,860원에서 자본금 500,000원만 차감한 값이다. 전환권대가 288,220원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함께 대체해야 하므로 틀리다. 틀린 표현은 전환권대가를 누락한 점이고, 올바르게는 392,860원에 288,220원을 더해 681,080원이 된다.
③ O: 전환 시점 부채 장부금액 892,860원과 전환권대가 288,220원을 합한 뒤 자본금 500,000원을 차감하면 681,080원이다. 계산 결과와 일치하므로 옳다.
④ X: 892,860원은 전환 직전 부채의 장부금액일 뿐 주식발행초과금 자체가 아니다. 전환 시에는 이 금액 전부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자본금 500,000원으로 대체되고, 전환권대가 288,220원도 함께 반영된다. 올바르게는 주식발행초과금이 681,080원이다.

오답 포인트

전환사채 전환 문제에서는 발행 시점의 전환권대가와 전환 시점의 부채 장부금액을 서로 다른 단계로 봐야 한다. ①은 전환권대가만 보고 멈춘 경우이고, ②는 전환권대가를 빠뜨린 경우이며, ④는 부채 장부금액을 그대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오인한 경우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환사채 전환 문제는 발행 시 부채요소와 전환권대가를 먼저 분리한 뒤, 전환 시점에는 남아 있는 부채 장부금액을 구하고, 발행주식의 자본금을 차감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을 계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전환 시 주식발행초과금 = 전환 시점 부채 장부금액 + 전환권대가 - 자본금이다.

NoteBase

문 24. 법인세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한다.

② 기업이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없더라도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다.

③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④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상계 요건과 측정 원칙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당기법인세는 당기 과세소득에 대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다. 이연법인세는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차이에서 생기는 미래 세효과이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의 상계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순액결제 의도 또는 자산 실현과 부채 결제의 동시 이행 의도까지 있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미래 세효과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법인세회계에서는 할인 여부가 아니라 적용 세율과 회수·결제 방식이 측정의 핵심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의도가 없더라도 … 상계할 수 있다"이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하려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와 함께 순액결제 의도 또는 자산 실현과 부채 결제의 동시 이행 의도가 있어야 한다.

③ O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보고기간말에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인지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해 측정한다. 회수 방식과 결제 방식이 달라지면 적용되는 세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④ O
법인세비용은 당기 과세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비용과 일시적차이 등 미래 세효과를 반영한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상계권리만 있으면 곧바로 상계가 가능하다고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당기법인세의 상계는 권리와 의도 요건을 함께 본다는 점을 놓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인세회계 문제는 먼저 당기법인세인지 이연법인세인지 구분한다. 당기법인세의 상계는 "법적 상계권리 + 순액결제 또는 동시이행 의도"로 판단하고, 이연법인세의 측정은 "비할인 + 예상 회수·결제 방식 반영"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당기법인세 상계는 권리만으로 부족하고 권리와 의도가 함께 필요하다. 이연법인세 측정은 할인하지 않고 회수·결제 방식을 반영한다.

NoteBase

문 25.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측정일 현재의 시장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가 교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②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 자신이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한다.

③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에는 거래원가를 조정한다.

④ 부채의 공정가치는 불이행위험의 영향을 반영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정가치 측정에서 정상거래, 최고최선사용, 거래원가, 불이행위험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의 가격이다.
비금융자산은 시장참여자의 최고최선사용을 전제로 측정한다.
거래원가는 특정 거래에서 드는 비용이므로 자산이나 부채 자체의 특성이 아니어서 공정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
부채의 공정가치에는 자기신용위험을 포함한 불이행위험이 반영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의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를 전제로 측정한다. 자산은 매도, 부채는 이전 기준으로 본다는 점까지 맞는 설명이다.

② O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최고최선사용을 전제로 한다. 보유자가 직접 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매도하여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을 고려하므로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가격에는 거래원가를 조정한다'는 표현이다. 공정가치는 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을 기초로 하지만 거래원가는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은 거래원가로 조정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위치 관련 운송원가만 고려할 수 있다'이다.

④ O
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부채가 이행되지 않을 위험, 즉 불이행위험의 영향을 반영한다. 여기에는 보고기업 자신의 신용위험도 포함된다.

오답 포인트

③은 '가장 유리한 시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거래원가까지 반영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가장 유리한 시장을 판단할 때는 거래원가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일단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시장가격 자체를 거래원가로 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정가치 문제에서는 먼저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인가', '비금융자산이면 최고최선사용인가', '거래원가는 측정값에서 제외되는가', '부채에는 불이행위험이 반영되는가'를 순서대로 대조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공정가치는 시장기준 가격, 거래원가는 제외, 부채에는 불이행위험 반영이다.

NoteBase